

눈물 젖은 그라운드서 뛰어 봤는가? 그것이 인생이다



이재국의 주말 야구여행

이승엽 400홈런...관중석 아버지의 눈물 애틀 스프링캠프 지옥훈련 힘들어서 울었던 장운호 통한의 역전패 한국리틀야구 선수의 눈물까지

#1. 삼성 이승엽(39)의 아버지 이춘광(72) 씨. 6월 3일 포항구장에서 아들이 KBO리그 통산 400홈런을 쳤을 때, 손수건으로 훔아지는 눈물을 닦았다. 불혹의 아들 몰래 관중석 한쪽에 자리 잡고 연신 눈물을 흘리던 칠순 넘은 아버지의 모습이란... 전광판을 통해 비친 그 장면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장면들이 눈앞에 휘몰아칩니다. 승엽이가 어릴 때 야구 시작했던 장면, 피나는 노력을 했던 장면, 중·고등학교를 거쳐 프로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던 장면,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하고 베이징올림픽 때 홈런 치던 장면, 일본에서 잘 하다 수술하고 부진에 빠졌던 일까지... 그리고 ‘하늘로 먼저 간 승엽이 엄마가 여기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빗물처럼 쏟아집니다. 요즘 야구시키는 학부모들도 아마 마음 졸이면서 아들을 지켜볼 겁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래요.”

그 오랜 세월 남몰래 흘린 아버지의 속울음이 오늘날 ‘국민타자’를 탄생시켰는지 모른다. 겉으로는 강해보이고, 아들에게 유독 엄격한 우리네 아버지도 때로는 아들 때문에 운다.

#2. “스프링캠프 때 백스톱 쪽에서 타격훈련을 하다 갑자기 사라졌어. 어디 있나 봤더니 혼자 2루쪽에 가서 울고 있더라고. 힘들었던 모양이야.”

한화 김성근(73) 감독은 올해 초 일본 고치 스프링캠프 때 있었던 그 일부터 떠올리며 빙그레 웃는다. 누구나 다 아는 ‘김성근식 지옥훈련’. 구경꾼들이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선수들은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느낌이다. 프로 데뷔 3년차의 스물한 살 유망주. 그렇잖아도 풀잎처럼 앓돼 보이는 장운호는 그 지옥훈련을 경험하다 울어버리고 말았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을 흘렸을까. 그러나 운다고 타협은 없었다.

“힘들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지만 계속 쳐야 하니까. 정말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장운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씩스름하게 웃는다.

장운호는 최근 주목 받고 있다. 전반기 막바지인 7월 15일 청주 롯데전에서 홈런 1개와 2루타 2개를 포함해 6타수 5안타를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다. 후반기 개막전인 21일 수원 kt전에서도 4타수 2안타를 때렸다. 아직 올 시즌 19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지만, 3할대 타율(0.306)을 올리며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강한 어깨와 정확한 송구, 빠른 발도 매력이다. 김 감독도 “한화의 미래”라며 “장운호가 주전 외야수로 자리를 차지하는 날 한화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말했다.

남자가 힘들어서 울었다는 게 어쩌면 창피한 일. 그러나 스프링캠프에서 남몰래 흘린 그 눈물이 있었기에 장운호는 더 강해졌는지 모른다.

#3. “영영,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영, 내년에는 꼭 우승하겠습니다.” 어린 선수가 마이크 앞에서 펄펄 울며 인터뷰를 했다.

지난해 29년 만에 리틀리그 월드시리즈를 제패해 우리에게 감동을 전했던 12세 이하 리틀야구대표팀. 올해 새롭게 대표팀을 꾸려 중국 구이린에서 열린 제69회 리틀야구 월드컵 아시아-퍼시픽 지역예선에 참가했지만, 결승에서 대만에 통한의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6회 말 마지막 수비에서 끝내기안타를 맞고 패했다.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그렇게 울었을까. ‘리틀야구 성지’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츠타마데 스타디움을 밟지 못하게 된 어린 선수는 인터뷰를 하면서도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 모습이 가슴 찡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면 됐다. 그대들이 챔피언이고, 한국야구의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영국 시인 로버트 헤릭은 ‘눈물은 눈이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언어’라고 했다. 흔히 남자는 울어선 안 된다고 하지만, 남자도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것이다. 이승엽 아버지의 짙은 눈물, 리틀야구선수의 분한 눈물, 장운호의 몰래 흘린 눈물, ... 팬들의 환호성 뒤로 흐르는 사연 많은 남자들의 그 순수한 눈물이 한국야구의 밑거름이다. 야구는 인생의 축소판이고, 그라운드는 바로 우리네 인생의 무대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삼성 이승엽이 6월 3일 포항 롯데전에서 KBO리그 최초 개인통산 400홈런을 친 뒤 팬들에게 모자를 벗어 인사하는 순간. 아버지 이춘광 씨가 손수건으로 하얗게 젖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는 장면이 전광판으로 나오고 있다. 불혹에 접어든 아들을 바라보는 칠순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애틍하다. 스포츠동아DB



한화 장운호는 올해 초 일본 고치 스프링캠프에서 타격훈련을 하다 너무 힘들어 혼자 2루쪽으로 사라진 뒤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을 닦고 더욱 강해져 돌아왔다(왼쪽 사진). 12세 이하 리틀야구대표팀의 송하늘은 제69회 리틀야구 월드컵 아시아-퍼시픽 지역예선 결승에서 대만에 패해 본선 진출에 실패한 뒤 평평 울면서 방송 인터뷰를 해 화제를 모았다. 스포츠동아DB·KBS뉴스 화면 캡처

투구패턴도, 마음가짐도 달라진 봉중근

투심·체인지업 적극 활용...후반기 승부수 “승리를 위해서라면 7회 2사에도 등판할 것”

“9회에만 등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회 투 아웃이어도 마운드에 오르겠습니다.”

LG 봉중근(35·사진)이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그는 22일 잠실 넥센전에서 5-3으로 앞선 8회 무사 1·2루의 위기에서 마운드에 올라 2아웃을 무실점으로 막고 24일 만에 세이브(시즌 11개)를 추가했다. LG로서도 마무리 봉중근을 올려 후반기 첫 승을 챙겼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더욱이 봉중근이 잘 던진 이유가 오랜 휴식 후의 등판이라서가 아니었기에 고무적이다. 14일 광주 KIA전 이후 8일 만에 마운드에 오른 그의 이날 직구 최고 구속은 142km에 불과했다. 구속 자체만 보면 전반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비결은 따로 있었다.

봉중근은 “(포수) 최경철과 상의해서 기존과 다른 패턴으로 승부했다. 마무리투수를 하면서 한 번도 던지지 않았던 투심패스트볼을 많이 던졌다. 올스타 브레이크 때 투심을 연습했고, 체인지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며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아닌 선발투수들이 던지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최경철도, 나도 불안해했지만 결과가 다행히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게 던졌는데 직구 구속이 141km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도 구속이 나오지 않는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다. 남은 후반기에는 달



라진 패턴으로 투구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달라진 투구 패턴만큼 마음도 어느 때보다 단단히 먹었다. 봉중근은 “등판도 오랜만이었지만 세이브 기회가 너무나 오랜만이었다. 보직이 마무리투수이다 보니 팀이 이기는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르니까 ‘이 승리를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며 책임감을 드러내고는 “(세이브 상황) 자주 왔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팀이 이긴다는 의미 아닌가. 난 마무리투수라고 해서 9회에만 등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7회 투 아웃이든, 8회 등 상판하지 않고 마운드에 오르겠다”고 다짐했다.

잠실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편집 | 고정일 기자 ico@donga.com

전국 23개 지역 700여 개 팀이 참여하는 유·청소년 축구리그

운동장 보다 더 큰 꿈을 꾸는 아이

i리그

꿈을 가진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축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모두 축구선수를 꿈꾸지 않습니다. 과학자에서 세계를 누비는 여행자가까지.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꿈을 품고 축구를 즐기며 운동장을 달립니다. 축구를 통해 꿈을 키우는 아이들. i리그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즐기는 축구! 축구로 더욱 커지는 무한한 꿈!

2015 I-리그 여름축구축제 & 아시아 유소년 축구축제 동시 개최

기간 : 2015년 8월 7일(금) ~ 10일(월) 3박4일 / 장소 : 안성종합운동장 및 일대 / 규모 : 아시아 20개 국 300개 팀, 5,000명 참가

I-리그 여름축구축제

참가지역 : 서울 광진구, 마포구, 광주 광산구, 대구 달서구, 인천 서구, 경기 광명시, 남양주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주, 전라북도, 여주시, 경북 영주시, 경남 김해시, 강원 속초시 등 전국 23개 아이리그 참가지역

아시아 유소년 축구축제

참가국가 : 네덜란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등 아시아 20여 개 국

참가문의는 각 i-리그 참가지역 생활체육회 및 전국 유·청소년 축구연맹 www.nyff.or.kr

이 제작물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최

국민생활체육회
Korea Council of Sport for All

주관

국민생활체육회
전국축구연맹회
대한체육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

후원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